

언어분석적 방법과 인문과학*

김 효명(서울대 철학과)

1. 서구의 학문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소위 ‘분석’(Analysis)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학문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 Euclid가 <Elements>에서 점, 직선, 도형 등의 개념들을 밝히려 하였을 때, Platon이 <Theaetetus>편에서 지식의 개념을, 그리고 <Republic>편에서 정의(正義)의 개념을 밝히려 하였을 때, 또 Aristoteles가 <Organon>에서 삼단논법의 구조나 양상개념들을 해명하려하였을 때 모두 이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도 Descartes, Locke, Hume 등의 철학자들의 작업속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분석의 시대’라 불리우는 이십세기보다 이 방법이 더 널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최근에 와서 이 분석적 방법이 과연 학문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또는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금세기 중반 경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분석의 방법이야말로 그 이전엔 풀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이십세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을 형성하게된 소위 ‘분석적 방법’이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말하는가? 본 논고는 이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분석의 방법이 어떤 특징과 어떤 내용을 가졌기에 하나의 중요한 학문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인문과학, 특히 철학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발

* 이 논문은 교육부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전해 왔는지 등의 문제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2. 일반적으로 말하여 ‘분석’이란 하나의 복합체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요소들 각각은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복합체를 가능한 한 최소단위로 쪼개봄을 뜻한다. ‘분석’을 이와 같이 쉬운 말로 ‘쪼갠다’는 뜻으로 파악하였을 때 제일 먼저 머리 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왜 쪼개는가?” “무슨 목적으로 쪼개는가?”일 것이다. ‘쪼갠다’는 말이 사용되는 가장 평범한 경우는 “나무를 쪼갠다”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왜 나무를 쪼개는가?”하는 질문은 쉽게 대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질문이 의미 있게 제기되는 경우는 쪼掴이 이와 같이 단순한 실용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순수히 이론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분석해 본다’, ‘쪼개 본다’는 일상어에서의 ‘본다’는 말도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본다함은 쪼掴 결과가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따져보기 이전에 일단 한번 쪼개놓고 보자는 이론적 호기심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쪼개 보려는 행위는,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행위이든 또는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하는 행위이든, 문제되는 대상이 일단 쪼개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전제는 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무한히 쪼개질 수 있는 것인지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철학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상식에 더 가까운 견해를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다. 이를 전제로 하였을 때 어떤 것을 쪼개보자함은 쪼깰 수 있는 데까지 쪼개본 다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자함이 되겠다. 쪼개보려는 호기심이 궁극적으로는 쪼개지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데에서 유발되었을 것인 바, 쪼掴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함은 바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 보자함과 둘이 아닌 것이 되겠다.

쪼개봄이 무엇을 봄이며, 남는 것을 본다함은 무엇을 본다는 뜻이기에

이것이 바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본다함과 연관되는 것일까? 이제 ‘분석’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해 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의 결과가 분석되는 대상이 무엇임을 아는 것과 연관되는 것일까? 분석자가 일정한 개념 틀을 형성하기 이전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분석자가 대상 A를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이 이를테면 {a, b, c, d}라는 구성요소로 분석됨을 알았다고 하자. 분석자가 사물을 분류하는 개념 틀을 사전에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그 사물에 대한 암을 획득하는 데 별 보탬이 못될 것이다. 분석의 결과가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또 암의 획득에 최소한의 보탬이 되려면 한 대상에 대한 분석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적어도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대상들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상 A와 유사한 대상 B의 분석결과가 {a, e, c, f}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두 분석으로부터는 적어도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두 대상 A, B는 분석해 본 결과 a와 c라는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 어떤 요소 a가 대상 A에도 있고 대상 B에도 있다는 사실이 말하자면 분석에 의하여 새로이 얻어진 정보가 되겠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a와 관련하여서는 A와 B가 같다든지 유사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a라는 것이 A와 B같은 류의 대상과는 그 존재론적 지위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A나 B는 a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들로 짜여져 있는 것들로서 어떤 요소들이 각기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 서로 구분되고 개별화될 수 있는 대상들이다. 말하자면 A와 B는 개별자 (particulars)인 반면 a같은 요소는 보편자 (universals)이다. a는 개별자와는 다르게 각 개별자들을 분석해서 나온, 각 개별자들에서 특수한 것들을 사상(捨象)해버리고 남는 어떤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a는 분석의 결과이자 동시에 추상(abstraction)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분석작용과 추상작용을 거쳐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은 결국 그것을 분석하고 추상한 결과 어떤 일반개념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된다.

물론 우리가 개념을 갖게 되는 경위가 반드시 이와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념을 배우고 개념 틀을 갖추게되는 경로는 이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할 것이다. 어쩌면 사물을 경험하고 분석하고 하는 행위 이전에 이미 개념과 개념 틀부터 먼저 학습을 통하여 갖추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위, 어떤 경로가 올바른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밟든 분석과 추상이 우리의 개념 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일정한 언어를 일정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과도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3. 앞에서 우리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극히 단순화시켜 말해 보았지만 사실 그러한 분석과 추상의 과정은 사실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념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본 그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우리는 어떤 일반개념을 분석과 추상의 과정을 거쳐 형성한다기보다 분석과 추상 이전에 이미 학습을 통하여 그리한 개념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학습을 통하여 숙지하게 된 개념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김도 보통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개념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그렇게 하여 갖추어진 개념 틀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헛된 물음들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질문들일 것임은 물론이다. 개념과 개념 틀은 우리와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架橋)와도 같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개념 틀은 우리가 우리의 바깥세계를 보기 위하여 눈에 부착한 안경과도 같다. 따라서 그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 더 심각하게는 그 안경이 바깥세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물음은 매우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교 내지는 안경으로서의 개념 틀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과학에서도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 또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인간의 개념 틀은 초역사적으로 고정된 보편성을 띤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문화에 따

라 변화하는 것인가? 일상적인 개념 틀과 과학적인 개념 틀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 보편적이든 특수적이든 도대체 개념 틀이란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개념 틀 없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개념을 가지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의 암이든지 도대체 암이란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또 우리가 가진 개념체계는 세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에 충분한 것인가? 개념체계를 통한 우리의 세계이해가 도대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가? 개념 틀 자체가 가진 문제로 인하여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

이상과 같은 여러 물음들은 모두 개념체계의 본성에 관련된 질문들이다. 우리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체계들 자체가 적절하게 이해되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세계이해가 과연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판가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원자물리학, 열역학, 상대성이론 등의 과학이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이해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이론 체계들은 복잡한 자연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러한 체계들의 개념적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아직도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론이란 법칙과 어떻게 다르며 법칙이란 무엇인지, 또 법칙이나 이론이 증거나 확증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개념체계 자체를 이론적 탐구의 대상으로 놓았을 때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개념체계 자체에 대한 이론적 탐구야말로 철학이 짊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철학에서의 분석적 방법은 바로 그러한 개념체계의 본성에 관한 적절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은 바로 개념, 또는 개념체계가 된다.

4.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개념형성은 보통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다, 그리고 학습을 통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든 과학적인 개념이든 개념은 간혹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세계파악 또는 세계이해가 그러한 파악이나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개념 틀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개념 틀이 제대로 된 것인지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러한 의문은 또 자연히 각 개념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하는 의문으로 연결될 것이다. 철학적 탐구는 바로 이러한 반성적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개념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대개 두개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대답되어질 수 있다. 그 질문은 개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념의 시원적 의미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으려는 차원에서도 대답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념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의 논리적 구조를 파헤쳐 봄으로써 대답될 수 있는 차원도 있다. 후자가 바로 분석이 관여될 수 있는 차원이다. 개념의 역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가진다면 어떤 성격의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큰 철학적 주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접어두고 일단 하나가 수평적 구조를 다루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구조를 다루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분석적 방법은 바로 수직적 구조와 연관된다는 점만 언급해 두기로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분석은 언어분석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언어분석은 바로 개념분석의 필연적 결과이다. 애초에 사람들은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세계가 인지되고 이해되는 방식, 즉 인지체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그러한 인식과 이해가 표현되는 매개체로서의 언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음은 극히 당연한 사태의 추이라 하겠다. 언어의 본성이 무엇이고, 언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연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언어철학적 관심은 17, 18세기의 근세 철학자들-Berkeley, Hume, Leibniz-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생기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도 언어를 인류사와 연결시켜 보려하였던 J. G. Herder, 어원학의 발전과 Hegel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을 연결시키려 하였던 O. F. Gruppe 등에 의하여 여러 영역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언어 철학은 아무래도 이십 세기에 와서야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십 세기 철학은 철학의 전통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라고 부르는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언어적 전회’란 간단히 말하여 전통적인 인식론,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언어의 의미의 문제로 바꾸었음을 뜻한다. 언어가 가진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여러 문제들을 해결 내지는 해소시키려 함이 언어적 전회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미론적 전환은 경험적 의미기준을 내세운 이십세기 초의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 간의 대응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논리적 원자론, 또 최근으로는 존재론적인 문제를 여러 개별과학에서 수용된 이론 문장들의 형식적 구조의 문제로 변형시키고자 한 Quine, 그리고 더 최근으로는 자연언어의 의미론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본 Davidson 등, 여러 학파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다.

언어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틀어 우리는 ‘분석철학’이라고 일컫는데, 여러 갈래의 분석철학적 시도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여러 시도들이 직접·간접으로 모두 Frege의 철학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Frege의 철학은 말하자면 20세기의 여러 분석철학적 시도들에 공통적인 뿌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Dummett에 의하면 ‘분석철학’이란 바로 Frege 이후의 철학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Frege의 철학은 “철학에도 진보가 있는가?” 하는 Kant의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준 최초의 철학이라고 파악된다. 인식론적 문제, 또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논리학에서의 진보’ 덕분에 대답될 수 있음을, 따라서 철학이 고유한 방법과 대상이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Frege였다. 다시 말하여 Frege는 “사유”(Thought)가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해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철학자였다.

Frege는 전통적으로 인식론이 차지하였던 철학의 제1자리를 의미이

론으로 대체시켰다. 의미이론의 목적은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이론이란 누군가가 언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언어에 대한 Frege의 생각은 그 후 Wittgenstein, Carnap 등 다양한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영향은 Russell의 논리적, 수학적 저작들에도 나타나 있으며, 더 최근으로는 포괄적인 의미이론을 구축해 보려는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Husserl의 초기 심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현상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Frege가 말하는 “사유(thought)”란 사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령 “ $3 + 5 = 8$ ”이라는 문장을 접했을 때 그 문장이 누구에 의해 사유되었으며, 누구에 의하여 사유되고 쓰여졌는지에 대해선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 문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일이다. 이것을 일반진술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진술의 형성이 아무리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진술에 표현된 사유만큼은 객관적, 초역사적, 비개인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Frege가 의도한 철학적 과업은 사유에 입혀진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옷들을 벗겨버리고 남는 순수사유만을 그 옷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Frege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언어는 그것이 가지는 특성, 즉 부정확성 때문에 순수사유를 드러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진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적 내용이나 순수사유는 일반적으로 일상언어에서는 불완전하게 드러날 뿐이다. 일상언어 또는 자연언어의 이러한 결점이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형식언어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 바로 그의 주저 “Begriffschrift”¹⁾의 목적이다. “Begriffschrift”的 목적은 순수사유의 형식언어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순수사유의 형식언어는 개념적 내용과 사유를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호체계이다.

Frege의 가장 큰 업적은 철학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을 바

1) G. Frege, *Begriffschrift*, ed. by I. Angelelli, Hildesheim, 1964.

꾸어 놓았다는 점이었다고 보통 말해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인식론 대신에 논리학을 대체시켰다는 것이 그의 업적으로 꼽힌다. 이때 ‘논리학’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분야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더 정확하게로는 ‘언어 철학’에 해당된다. 따라서 Frege 이후, Frege 영향을 받은 철학에서는 바로 언어철학이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무릇 철학이란 사유로 이루어질 것이고, 사유에 대한 분석은 오직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Frege에 의하면 사유는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고 언어에 의하여 전달됨을 그 본질로 한다.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선 언어를 분석해야 한다.

5. 그렇다면 언어분석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또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예로서 시작해 보기로 하자. 언어분석의 분명하고 대표적인 전형을 명시적으로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G.E. Moore는 언어분석에서 “피분석항(analysandum)과 분석항(analysans)은 모두 개념이나 명제이어야 한다”²⁾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분석항이 복합명제인 경우 이를 더 단순한 명제나 더 단순한 개념으로 구분해내는 것이 분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아주 비근한 예로 “자매가 여자들임은 필연적으로 참이거나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거나이다.”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 이 명제가 단순명제가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분석될 수 있는 명제들 중의 하나이다. 우선 이 명제는

- (1) 자매가 여자들임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 (2) 자매가 여자들임은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다.

는 더 단순한 두 명제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분석된 이 두 명제도 더 분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명제는 모두 “자매는 여자들이다.”는 명제를 그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매는 여자들이다.”는 명제

2) G. E. Moore, "A Reply to My Critics," in *The Philosophy of G. E. Moore*, ed., by P. A. Schilpp, La Salle, 1968, vol.2, p.664.

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명제로 분석될 수 없다.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 부른다. 그러나 위의 두 명제 (1)과 (2)는 “자매는 여자들이다”는 구성요소 외에도 ‘필연적으로 참이다’ 또는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다’는 구성요소를 더 가지고 있다. ‘필연적으로 참이다’는 것은 명제가 아니고 개념이다. 그리고 명제 (2)는 명제 (1)과는 다르게 ‘필연적 참’이라는 개념 외에도 ‘아니다’는 개념을 더 가지고 있고, 또 원래의 명제는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한가지 더, 즉 ‘...혹은’이라는 선언(disjunction)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래의 명제는 “자매는 여자들이다”는 단순 명제와 필연적 참, 부정(negation), 선언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석의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자매는 여자들이다.”는 명제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가? 단순한 명제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다고 앞에서 말하였다. 따라서 명제 차원의 분석에서는 “자매는 여자들이다.”는 명제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분석이 꼭 명제차원의 분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단순명제일지라도 그 단순명제를 이루고 있는 개념들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이 경우 ‘자매’라는 개념이 또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매’라는 개념도 ‘여자’라는 개념과 ‘같은 양친을 가짐’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서 일종의 복합체이다. 또 다른 요소 ‘필연적 참’이라는 개념도 더 분석될 수 있다. ‘필연적 참’은 ‘필연성’이라는 개념과 ‘참’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된 복합개념이다. 그렇다면 ‘필연성’과 ‘참’은 어떤가? 이들 개념 역시 분석이 요구되는 복합개념들이다. 특히 이 두 개념들은 그 개념들의 역사로 보나 그 개념들이 가지는 의미의 중대성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개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분석도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두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의 역사는 철학의 역사와 맞먹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기에 그것들이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분석되는지 또는 분석되어야 하는지는 여기에서 간단히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들 자체가 깊은 성찰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철학적 주제들이다.

이와 같이 간단해 보이는 명제 하나라도 분석을 하다보면 그 분석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간단한 것 하나에 대한 분석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음을 보이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았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드러나는 점 중의 하나는 분석이 명제나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천험적 지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우선 분석은 피분석항과 분석항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준다. 왜냐하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피분석항이 분석항과 동치(equivalence)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것은 피분석항이 분석항을 적어도 함축(implication)은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든 예에서 ‘자매’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은 완전한 분석이다. 따라서 이 경우 분석은 ‘자매’라는 개념이 ‘여자임’과 ‘같은 양친을 가짐’이라는 두 개념의 연언과 동치임을 보여준다. 물체(body)개념을 연장(extension)개념으로 분석한 Descartes나 Kant의 분석은 부분적 분석이다. 왜냐하면 물체개념과 연장개념은 하나가 다른 것을 함축은 하지만 둘이 동치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석을 통하여 피분석항이 분석항으로 분석됨이 만약 참이라면 항상 참이라는 사실을 경험과는 관계없이 알 수 있다. 특히 피분석항과 분석항이 동치일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피분석항과 분석항의 동치임은 어떤 가능한 상황, 어떤 가능한 세계에서도 참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그것은 경험적 참에 대비되는 분석적 참(analytic truth)이다. 개념의 경우 분석되는 개념과 분석하는 개념이 동치라면 그 개념에 대한 분석은 바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된다. 정의도 따라서 만약 그것이 참이라면 항상 분석적 참이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점, 즉 분석이 가지는 분석적 참의 성격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른바 ‘분석의 패러독스’(paradox of analysis)라 불리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분석의 패러독스란 분석이 참일 경우 그 분석은 분석적 참일 것이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바가 없을 것, 따라서 분석을 해보았자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고, 분석이 거짓일 경우 개념적 착오만 유발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C. H. Langford는 Moore의 철학을 비평

하는 자리에서 분석의 패러독스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분석되는 것을 ‘피분석항’, 그리고 분석하는 것을 ‘분석항’이라고 부르자. 분석은 피분석항과 분석항 사이의 적합한 관계를 드러내 준다.... 분석의 패러독스란 만약 피분석항을 나타내 주는 언어적 표현이 분석항을 나타내 주는 언어적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면 분석은 단순한 동일성을 보여줄 뿐이며, 따라서 사소한 (trivial) 것이 될 것이고, 만약 두 언어적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분석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³⁾

예컨대 앞에서 든 ‘자매임(being a sister)’이라는 개념은

- (1) ‘자매임’이라는 개념은 ‘같은 양친을 가지는 여자임’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
- (2) “ x 는 자매이다”라는 명제함수는 “ x 는 같은 양친을 가지는 여자이다”라는 명제함수와 동일하다.
- (3) 어떤 사람이 자매이다라고 말함은 그 사람이 같은 양친을 가지는 여자이다라고 말함과 같다.

등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방식으로 분석되든지 분석의 패러독스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1), (2), (3) 모두가 만약 참이라면 그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명제는

- (4) 자매임이라는 개념은 자매임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

는 문장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만약 분석이 올바르다면 (1), (2), (3)의 문장으로 표현된 명제는 (4)의 문장으로 표현된 명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4)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사소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분석이 올바르다면 사소한 것이 되고, 사소한 것이 안되려면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3) C. H. Langford, "The Notion of Analysis in Moore's Philosophy," in *The Philosophy of G. E. Moore*, p.323.

6. 이상에서 간략하게 고찰해 본 분석의 패러독스란 사실은 ‘동일성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것의 한 특수 형태이다. 동일성(Identity)의 패러독스란 어떤 동일성 진술일지라도 그것이 만약 참이라면 어떻게 정보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하는 물음과 관련된 패러독스이다. 예컨대 9라는 수는 3의 2제곱이라는 수와 동일하다. 다시 말하여 “ $9 = 3 \times 3$ ”이라는 명제는 “ $9 = 9$ ”라는 명제와 마찬가지로 동일성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의 명제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반하여 전자의 명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9 = 3 \times 3$ ”과 “ $9 = 9$ ”는 동일한 명제를 나타내고 있다면 양자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문제가 바로 Frege가 그의 유명한 논문 “의미와 지칭”(Ueber Sinn und Bedeutung, On Sense and Reference)⁴⁾에서 제기하고 해결하려 하였던 문제이다. Frege는 이 논문에서 동일성 명제가 어떻게 올바르게 분석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일성 명제의 일반적인 형태는 “ $a = b$ ”이다. 이 동일성 명제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와 같다”로 해석되는 동일성 기호 ‘=’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이다. 분명히 그것은 일종의 관계(relation)를 표현한다. 그러나 무엇과 무엇의 관계란 말인가? 이에 대한 한 가능한 대답은 그것이 대상들(objects)간의 관계라는 대답이다. 이 대답에 의하면 동일성 명제는 만약 그것이 참이라면 어떤 대상이 그 자체와 동일성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하여 “ $a = a$ ”도, 그리고 “ $a = b$ ”도 어떤 대상이 그 자체와 동일성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명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Frege는 이 해석이 동일성 명제에 대한 만족할만한 분석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이 분석에 따른다면 “ $a = a$ ”와 “ $a = b$ ”라는 두 동일성 명제의 중요한 차이점이 전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 $a =$

4) G. Frege, "Ueber Sinn und Bedeutung,"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philosophische Kritik*, 100 (1892), pp.25-50. "On Sense and Reference," trans. by M. Black in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ed., by P. Geach and M. Black, Oxford, 1977, pp.56-78.

b "와 " $a = a$ "가 모두 동일성 명제이긴 하지만 " $a = b$ "는 " $a = a$ "가 주지 못하는 어떤 정보를 준다. 다시 말하여 두 명제는 그 인지(認知)적 지위에서 차이가 난다. 어떠한 대상이든 그 대상이 자신과 자기동일성의 관계를 가진다는 해석만으로는 " $a = b$ "가 왜, 그리고 어떤 점에서 " $a = a$ "와 다른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Frege의 관심은 " $a = b$ "와 같은 우리의 지식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동일성 명제가 어떤 점에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 $a = a$ "같은 동일성 명제와 다른지를 설명하는 일에 모아진다.

그래서 Frege는 동일성 명제에 대한 두번째 가능한 분석으로 넘어간다. 이 분석에 의하면 동일성의 관계를 어떤 대상이 자기자신과 가지는 대상간의 관계로 보지 않고 두개의 이름(name)간에 성립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파악된다. 다시 말하여 이 해석에 따른다면 동일성의 관계는 존재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호간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 $a = b$ "라는 명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름 또는 기호 ' a '와 ' b '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점이 된다.

그러나 Frege는 그 후 이 해석이 첫번째 해석보다는 진일보한 해석이긴 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두번째 해석에 의하면 기호 그 자체가 대상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물리적 속성이 다른 두 기호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기호의 물리적 속성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다. 예컨대 “이퇴계 = 이 황”이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이퇴계’와 ‘이 황’이라는 기호는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지면서도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름으로 기능한다. 이 때 두 이름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다. “ $a = b$ ”라는 동일성 명제가 말해주는 바도 두개의 임의로 선택된 기호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 $a = b$ ”라는 명제는 ‘ a ’와 ‘ b ’에 의하여 지시되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주지 않는다. 즉 “이 퇴계 = 이 황”이라는 명제는 ‘이퇴계’나 ‘이 황’이라는 기호가 공통적으로 지시해 주는 인물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이 퇴계 = 이 퇴계”라는 동일성 명제

와 다를 바 없다. 즉 “ $a = b$ ”가 대상에 대하여 “ $a = a$ ”보다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a = b$ 임을 아는 데 포함되는 것이 기호 ‘ a ’가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또 기호 ‘ b ’가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기호 ‘ $=$ ’가 ‘동일한 지시체를 가진다’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 $a = b$ ”는 순전히 바로 위의 정의들에 의하여 참인 명제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 $a = b$ ”라는 명제가 순전히 정의에 의하여서만 참인 것으로 알려질 수 있는 성질의 명제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정보를 주기도 하며 지시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 $a = b$ ”가 대상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준다함은 기호 ‘ a ’와 ‘ b ’의 사용에서의 어떤 특징을 그 명제가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Frege는 바로 이 점을 첫번째 해석과 두번째 해석이 간과하였다고 본다. 이 요소가 바로 Frege가 말하는 바 ‘의미’(Sinn, sense)라고 불리는 것이다. 모든 기호의 사용에는 의미적인 요소가 있는데 “ $a = a$ ”와 “ $a = b$ ”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의미의 차원에서이다. 다시 말하여 “ $a = b$ ”가 “ $a = a$ ”와는 다르게 어떤 인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까닭은 기호 ‘ a ’와 ‘ b ’가 각기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Frege가 말하는 의미란 무엇을 말함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호의 지시체(Bedeutung, reference)와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지시체와 지시관계(relation of reference)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a 가 대상 O 에 대한 기호라고 해보자. 기호 a 는 그것이 지시체 O 를 지시할 때 O 와 지시관계를 가진다고 말해진다. 즉 기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지시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Frege에 의하면 이 지시관계는 관습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지시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호가 의미(Sinn)를 가진다는 사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아침별은 저녁별이다.”같은 명제에서 ‘아침별’이라는 기호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의미 덕분에 우리는 ‘아침별’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때 그것을 어떤 대상에 적용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다시 말하여 어느 때 어느 곳을 찾아야 아침별을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저

'넉별'이라는 기호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두 기호는 각각 독립적으로 어떤 대상을 집어내는 지시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작동하게되는 이유는 바로 각자가 따로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 독립적인 의미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여 집어내진 대상이 동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르게 말한다면 “아침별은 저녁별이다.”는 동일성 명제의 참은 선형적으로 알려지지는 않는다. 그 명제가 “아침별은 아침별이다.”는 명제와 같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미와 지시체간의 이러한 Frege식 구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성없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meaning)라는 말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에 대한 한 모형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여 분석이전의 ‘의미’라는 용어의 거친 사용법이 여러 가지로 세분되었다. ‘의미’라는 용어는 (1) 어떤 표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개인적, 주관적인 이미지나 관념, (2)그 표현의 의미 (Sinn), (3) 그 표현의 지시체 등등으로 달리 사용될 수 있다. Frege에 의하면 (2)와 (3)만이 언어의 논리적, 과학적 사용에 해당되고 (1)은 논리나 과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⁵⁾

7. 분석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로서 ‘분석의 완결성’이라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분석은 완결될 수 있는가? 완결될 수 있다면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하는 물음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 분석의 패러독스가 분석의 논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면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여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궁극적인 단순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그러한 단순체인가 하는 문제로도 파악될 수 있다. 초기의 Wittgenstein은 <논리철학논고>(Tratatus Logico-Philosophicus)에서 복합명제는 단순한 명제들로 분석될 수 있고, 단순명제들은 또 ‘이름’이라고 불리는 궁극적으로 더 단순한 구성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⁶⁾ 또 Moore

5) Cf.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pp.59-60.

는 <윤리학 원리>(Principia Ethica)⁷⁾에서 좋음(goodness)같은 것이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궁극적 단순체라고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분석의 형이상학을 다룬 대표적인 학자로서 B. Russell의 논리적 원자론(Logical Atomism)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Meinong과 초기의 Russell이 다루었던 문제중의 하나로서 “등근 사각형은 불가능하다.”라는 흔히 사용되는 일상어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물론 등근 사각형이다. 그런데 등근 사각형이란 분명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은 또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등근 사각형이라는 관념인가? 이것도 분명 아닐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주장되는 것이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붉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위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된다. 마찬가지로 “등근 사각형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한다함은 어떤 의미에서건 등근 사각형이 있어야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등근 사각형 같은 것에도 시간·공간적 존재나 추상적 존재는 아닐지라도 어떤 의미에서건 일종의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Meinong과 초기의 Russell의 해결방안이었다.

그러나 Russell은 그 후 즉각 이러한 Meinong식의 해결방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존재들을 허용하는 “팽창된” 존재론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알아차리고 소위 “강건한 실재감”(robust sense of reality)을 잃지 않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이 “지시에 관하여”(On Denoting)⁸⁾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시작된 그의 소위 “기술이론”(Theory of

-
- 6)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 into English by D. F. Pears and B. F. McGuinness, London, 1961, theses 3.23, 3.25, 3.201, and 3.202.
 - 7) G. E.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1962.
 - 8) B. Russell, "On Denoting," *Mind*, 1905. Reprinted in *Bertrand Russell's Logic and Knowledge*, ed., by R. C. Marsh, New York, 1956. pp.41-56.

Description)이라는 것이다. Russell의 기술이론은 일종의 언어분석의 방법으로서 그 기본요지는 우리의 언어체계에 속한 기호가 기본적으로 두개의 종류, 즉 고유명(proper name)과 기술구(descriptive phrase)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좀 느슨하게 이해하여 고유명이란 ‘Scott’같은 단순 기호를 말하고 그것이 하는 역할은 개별자(individuals)를 직접 지시하는 일이다. 이 때 바로 지시되는 그 개별자가 그 고유명의 의미가 된다. 고유명은 다른 말과는 독립적으로, 즉 고립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기술구란 ‘the author of *Waverly*’와 같은 복합기호이다. 기술구는 고유명과는 다르게 항상 개별자들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Russell은 기술구를 일명 ‘불완전 기호’(incomplete symbol)라고 불렀다. 불완전 기호를 ‘불완전’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문맥을 떠나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Russell의 이러한 구별은 단순하고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말과 복합적이고 분석될 수 있는 말들을 구별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완전한 언어에서의 표현은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지 그 자체 단순하고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말이든지 아니면 단순하고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말들로 분석되는 말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합적인 표현은 실지로 있는 것을 지시할 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표현은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실재물(real entity)을 지칭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여 고유명같은 단순표현은 그것이 지시하는 것이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Russell의 논리적 원자론의 형이상학에 의하면 어떤 말의 의미는 Frege의 이론에서와는 다르게 바로 그 말이 지시하는 실재물이 된다.

그렇다면 단순표현이 아닌 기술구같은 복합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Russell은 기술구의 분석을 시도한다. 이 결과가 바로 그의 기술이론이다. Russell의 기술이론의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 기술이론은 논리적 원자론이라는 철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Russell은 이 이론이

존재론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쉽게 말하여 기술이론은 필요하지 않는 존재를 과감히 줄여버려야 한다는 오캄(W. Ockham)의 원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현대적 도구를 제공하였다. 두번째는 기술이론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이다. 램지(F. Ramsey)는 Russell의 기술이론을 “철학의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면서⁹⁾ 철학이 분석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이를 수 있는 최대의 힘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술이론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뜻에서 철학의 모델이며 이십세기 철학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Russell의 기술이론이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기로 하자. “지시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Russell은 자신의 기술이론에 의하여 세 가지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중 두개는 소위 ‘실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시(reference)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세번째 문제는 동일성 명제에 나타나는 정관사 기술구(definite description)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 첫째 문제를 Russel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컨대 “A는 B와 다르다.”는 명제를 생각해보자. 이 명제가 만약 참이라면 A와 B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A와 B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subsist).”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명제가 거짓이라면 A와 B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는 뜻일 것이고, 따라서 “A와 B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는 것이 어떻게 한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있는가, 따라서 어떤 것이 있음을 부인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Russell의 기술이론이 해결하려 하였던 두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통논리학에서의 배중율(the law of excluded middle)에 의하면 “A는 B이다.”가 참이든가,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가 참이든 가이다.

9) F. P. Ramsey,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New York, 1950, p.263.

Russell의 예를 따르자면 “현재 불란서의 왕은 대머리이다.”가 참이든가 아니면 “현재 불란서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가 참이든가 둘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두 명제에서 주어로 되어 있는 ‘현재 불란서의 왕’이라는 기술구가 지시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구를 주어로 하는 문장은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거짓이 된다. 그러나 배중율이라는 논리적 법칙에 따르면 두개의 서로 모순되는 문장은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Russell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논리법칙이 왜 이 경우에서는 성립되지 않는가이다.

세번째 문제는 기술구가 개입된 동일성 명제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Russell의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동일성 치환원리(the Principle of Substitution of Identicals)에 의하면, 만일 a와 b가 동일하다면 a에 참인 것은 b에도 참이어야 하고 어떤 명제에서도 그 명제의 참, 거짓의 변경 없이 양자는 서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George 4세는 Scott가 Waverley의 저자였는지 아닌지를 알고싶어 하였다.” 그리고 “Scott는 Waverley의 저자였다.” 이 두 명제로부터 위의 치환원리에 따라 “George 4세는 Scott이 Scott이었는지를 알고 싶어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에 대한 Russell의 촌평은 Scott이 Scott이었는지 하는 동일성에 대한 관심이 유럽 제일의 신사였다는 George 4세의 관심이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상 소개한 세 가지 문제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들이 모두 기술구와 관계된다는 점이다. Russell에 의하면 고유명과는 다르게 기술구는 어떤 실재하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고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구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기술구의 표현을 가진 문장의 논리적 형식이 드러나도록 그 표현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Russell의 처방이었다. 예컨대 “현재의 불란서 왕은 대머리이다.”는 문장에서 정관사 기술구 ‘현재의 불란서 왕’은 문법적으로는 주어로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주어가 아니다. Russell에 의하면 그것이 논리적 주어가 아님은 바로 분석의 결과로 알려질 수 있다. 그의 분

석에 따르면 위의 문장은 “여기에 누군가가 있는데, (1) 그는 현재의 불란서 왕이고, (2) 바로 이 사람이외에 현재 불란서 왕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3) 그는 대머리이다.”라고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석하기 이전 문장에서의 ‘the present king of France’라는 표현이 분석한 결과 ‘a present king of France’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점과(우리말에서는 이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또 그 기술구의 위치가 분석하기 전의 주어의 자리에서 분석한 후의 술어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란서 왕’이라는 기술구적 표현도 분석해본 결과 ‘대머리’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체가 아니라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러한 성질을 가진 개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장이 거짓임도 판명되었다. Russell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의 불란서 왕’이나 ‘대머리’나 모두 명제함수(propositional function)로서 불완전한 기호(incomplete symbol)들이다. 대머리이든 대머리가 아니든 ‘현재의 불란서 왕’이라는 명제함수를 만족시켜 줄 개체항수(individual constant)가 없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들은 모두 거짓이 된다.

이상이 두번째 문제에 대한 Russell의 해결방안이었는데 첫번째와 세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유사하다. Russell의 이러한 해결책의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정관사 기술구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가정은 언어가 언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실재세계와의 모종의 관계를 맺기 때문이라는 가정이다. 그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투명한 것이 언어에서 가장 단순한 단위인 고유명과 실재 중에서 가장 단순체인 개체간의 관계라는 것이 Russell을 위시한 논리적 원자론자들의 생각이었다. 물론 성질을 나타내는 술어와 보편자간의 관계도 기본적인 관계라 할 수 있으나 경험주의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전자의 관계가 인식론적으로 더 기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언어 분석의 최종 도착지는 결국 고유명과 술어가 된다. 분석의 최종단위로서의 술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유명이다. 앞에서 고유명을 ‘Scott’같은 것으로 예를 들었었다. 그러나 사실은 Russell에 의하면 ‘Scott’같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유명이 아니고 단지 “가장되고”(disguised) “불완전한”(truncated) 기술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상적인 고유명(ordinary proper name)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인 고유명도 일종의 기술구라면 다른 기술구와 마찬가지로 더 분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Scott’같은 고유명도 어떤 개체와의 투명한 관계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서 언어와 세계간의 기본적인 연관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며, 어떤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할 진짜 고유명인가? Russell은 이를 ‘논리적 고유명’(logically proper name)이라고 하였는데 논리적 고유명이란 그에 의하면 논리적, 인식론적 분석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수행되었을 때에야 드러나는 어떤 것이다.¹⁰⁾ 논리적 고유명은 어떤 단순체를 지시하며, 이 단순체는 일상적인 고유명이나 기술구에 의하여서는 전달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 그러한 단순체일까? 그 전형적인 예로서 Russell은 소위 ‘감각 자료’(sense datum)라는 것을 들었다. 감각 자료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얻게 되는 자료를 말한다. 그것을 그는 ‘이것’(this) 또는 ‘저것’(that)이라는 지시사에 의거하여 가리킬 수 있다고 하였다. Russell에 의하면 ‘이것’ 또는 ‘저것’같은 순수 지시사가 바로 논리적 고유명이 된다. 논리적 고유명은 따라서 순수하게 지시하고 가리키는 기능, 즉 외연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어떠한 내포(connotation)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하여 논리적 고유명은 어떤 것을 순전히 가리키기만 하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어떠한 것도 기술해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Russell의 언어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언어분석의 끝점 중의 하나인 논리적 고유명이라는 것이 과연 언어와 실재간의 관계를

10) Cf. B. Russell,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in *Logic and Knowledge*, p.177, 281.

Russell이 기대한대로 그렇게 투명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만은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특히 논리적 고유명에 의하여 지시된다는 그 감각자료라는 것이 정말 하나의 단순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감각자료의 존재론적 지위는 무엇인지, 그것도 실재의 한 구성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그 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문제들이다. 논리적 원자론이라는 형이상학이 많은 이론적인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로만 남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라 하겠다.

8. 이상에서 우리는 여러 분석철학자들의 철학함에 나타나 있는 언어분석적 방법의 편린들을 살펴보았다. 언어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의 적용, 또 그 방법이 목표하는 바 등에서는 각 철학자들의 입장이 다소간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언어분석의 방법이 철학함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모든 분석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Moore는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을 옹호하고 근거 없는 형이상학적 사변을 비판하기 위하여 언어분석을 하였고, Frege는 수학의 기초를 의미론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Russell은 존재, 실재 등의 개념들에 얹혀있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각각 분석을 통하여 지향하는 바들은 달랐지만, 그 각각의 목적들이 모두 언어분석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Frege, Russell 이후에 이후에 전개된 분석철학에서 분석의 기술, 분석의 목적 등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는 언어분석의 방법이 초기의 분석철학자들에게서 어떻게, 그리고 왜 행하여 졌는지만 고찰해 봄으로써 소위 ‘언어분석’이란 무엇인지하는 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대답을 찾아보는 것에만 만족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펼쳐진 언어분석의 다양화 내지는 세분화과정에 대한 고찰은 생략하였다. 다만 이러한 언어분석의 방법이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학문적 특수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관하여서만 간단히 고찰해 보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겠다.

인문과학이 다른 과학과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앞서 인문과학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인문과학이 자연과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 인문에다 ‘과학’을 붙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물음이 반드시 대답되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야 할 중대성을 가진 물음인 것 같지는 않다. 이 문제는 ‘과학’(science)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로서 ‘과학’을 ‘자연과학’을 줄여서 한 말이라고 본다면 ‘인문과학’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 될 것이고, ‘과학’을 이론일반을 가리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인문이라고 해서 ‘과학’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법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문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것이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질문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이라고 하였을 때 그러한 과학의 특징은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인문과학 또는 인문학의 특징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측면은 아무래도 인문학의 탐구 방법과 대상의 측면이라 생각된다. 탐구의 방법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방법론적 일원론이냐 아니면 방법론적 다원론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탐구방법의 특이성이나 개별성을 논의하려면 방법론적 일원론의 논지를 논박하는 일이 선결문제의 하나로서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탐구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인문학과 예컨대 자연과학의 대비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아진다. 매우 포괄적으로 말하여 자연과학의 탐구대상이 한마디로 자연이라면 인문학의 탐구대상은 인간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인간이라 하더라도 생물학적 자연종(自然種)으로서 인간은 자연과학의 탐구대상이 되겠으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문과학의 탐구대상이 되겠다.

탐구대상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인문과학이란 이 중적 구조를 가진 학문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보통 탐구대상을 1차대상, 2차대상, 또는 1차자료, 2차자료로 구분한다. 1차자료란 그것이 경험적인

것이든 아니든 직접적으로 우리의 탐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을 말한다. 그리고 2차자료란 1차자료에 관하여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념화하고 이론화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자연과학을 위시하여 다른 과학들은 1차대상만을 탐구자료로 삼는데 반하여 인문과학은 1차 대상 뿐만 아니라 2차대상까지도 탐구자료로 삼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인문과학의 학문적 특수성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인문과학의 탐구대상은 인간이라는 앞서의 주장과 연관하여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여 인문과학의 탐구대상이 인간이라 함은 인간이 1차대상도 되고 2차대상도 된다는 뜻인데 이는 무엇을 의미함인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일단 1차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음악, 문학, 역사, 종교 등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1차대상으로서 인간을 다루는 학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인간이 2차대상도 된다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철학적 존재’란 무엇을 뜻하는가? ‘철학적 존재’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도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 중요한 의미중의 하나는 인간이 반성하고 반성을 줄 아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때 ‘반성’이라는 말도 또한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도덕적, 실천적 의미로서의 반성이 있는가 하면 이론적 인지적 의미로서의 반성도 있다. 철학적 존재를 반성적 존재로 규정하였을 때 물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 그러나 인문과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논의와 연관하여서는 후자의 의미로서의 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연, 사회, 문화, 역사 등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해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체계를 구축하며, 또 이론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이때 개념, 개념체계, 이론 등도 또 하나의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 사회, 문화, 역사 등이 탐구의 1차자료라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개념, 개념체계, 이론 등은 2차자료라 할 수 있겠다. 이 2차자료에 대한 탐구란 일종의 반성적 탐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개념체계나 이론에 대한 탐

구란 바로 인간들 자신의 지적작업에 대한 되돌아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문과학적 탐구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한 중요한 측면은 따라서 반성적 탐구의 성격을 강하게 떨 수밖에 없다. 학문일반과 관련된 ‘반성’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반성’이란 한편으로는 학문일반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인류의 삶 전체와 연관된 실천적인 의미로서의 반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근원적으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갖추어 놓은 개념체계나 이론자체의 정당성을 되물어 보는 고도로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을 뜻하기도 한다. 자연과학의 이론이든 인문과학의 이론이든 무릇 이론 일반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세계이해나 세계파악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지표 내지는 거울이 될 것인지 하는 물음은 실천적으로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느냐 하는 물음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실천적으로 올바른 삶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분석적 방법이 인문과학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개념, 개념체계, 이론 등에 대한 반성은 그것들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때의 분석은 언어분석에 달리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경험론이 행하였던 관념에 대한 분석, Kant가 이룩한 범주분석, 그리고 그 이후 개념체계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언어분석에 속한다. 또 이론에 대해서도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즉 이론과 귀납의 상관관계의 문제, 이론은 어떻게 확증되는지 하는 이론과 확증간의 관계문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복수이론의 가능성을 논하는 이론의 상대성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은 모두 언어분석의 범주에 속한다. 이론이 가지는 설명력과 관련하여서도 설명력의 구조, 설명에서 인과개념이 차지하는 역할 등에 대한 분석 역시 언어분석적으로 이루어진다. 더 근원적으로 이론을 이루는 명제 하나하나가 지식임을 주장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지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인식론적 문제도 대표적인 언어분석의 예에 속한다.

이십세기 철학에서 행해지는 모든 메타 이론적 작업은 거의가 이러한 언어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타 이론적 작업은 다른 이론 과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문 과학 특유의 지적작업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언어분석적 방법이라고 할 때, 언어분석적 방법이야말로 인문과학을 특징짓는 고유한 방법 중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메타이론적 작업이 반드시 언어분석을 통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참고문헌

- Ayer, A. J.,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1982.
 _____(ed.), *Logical Positivism*, New York, 1959.
- Davidson, D. and Harman, G. (ed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ordrecht, 1972.
- Dummett, M., *Frege: Philodophy of Language*, New York, 1973.
- Feigl, H., Sellars, W. and Lehrer, K.(eds.), *New Readings in Philosophical Analysis*, New York, 1972.
- French, P., Uehling, T. E. and Wettstein, H. K. (eds.),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Minneapolis, 1977.
 _____ (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Minneapolis, 1979.
- Geach, P. and Black, M.(eds.),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Oxford, 1977.
- Harrison, B.,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1979.

- Katz, J. J.,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1966.
- Klemke, E. D.(ed.), *Essays on Frege*, Urbana, 1968.
- _____(ed.), *Essays on Bertrand Russell*, Urbana, 1871.
- _____(ed.), *Contemorary Analytic and Linguistic Philosophies*, New York, 1983.
- Moore, G. E., *Philosophical Papers*, London, 1959.
- _____, *Principia Ethica*, Cambridge, 1971.
- Munitz, M. K.,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New York, 1981.
- Quine, W. V. O.,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Cambridge, 1953.
- Rorty, R. (ed.), *The Linguistic Turn: Recent Essays in Philosophical Method*, Chicago, 1967.
- Russell, B., *Logic and Knowledge*, ed. by R. C. Marsh, New York, 1956.
- _____, *Essays in Analysis*, ed. by D. Lackey, New York, 1973.
- Urmson, J. O., *Philosophical Analysis*, New York, 1956.
- Weitz, M. (ed.), *20th Century Philosophy: The Analytic Tradition*, New York, 1966.
- Williams, B. and Montefiore, A. (eds.), *British Analytical Philosophy*, New Jersey, 1966.
- Wittgenstein, L., *Tra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 into English by D. Pears and B. F. McGuinness, London, 1961.
- _____,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ed. by G. E. M. Anscombe and R. Rhees Oxford, 1958.